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5월 ~ 6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분석한 결과 대만, 허용량, 잔류, 농약, 수정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대만, 허용량, 잔류, 농약, 수정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05.05
유럽연합, 중국 측에
찾아본 농약 기준치
초과에 대해 연속 지적

2016. 12. 22
대만 새로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발표

2017. 03. 27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기준 완화



핵심이슈
도출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수정안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대만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수정안 발표

2017년 6월 29일, 대만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가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농약 성분인 플루오피람(Fluopyram)이 기존 찾잎 내 6ppm의 수준으로 허용되었던 점에 반에 수정 내용에는 해당 조건이 삭제되었다. 기존 대만의 찾잎 내 플루오피람의 잔류 허용량은 국제 표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의 잔류 허용량인 0.1ppm, 일본의 3ppm에 비해 최대 6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찾잎 내 높은 플루오피람 잔류 허용량 기준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만산 차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정부는 대외적 대만산 차 제품의 신뢰성 회복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해당 수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수정안 내용〉

품목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이유
찾잎 내 플루오피람 (Fluopyram)	기존 허용량 6ppm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식품 안전 보장 - 시민들의 여론 반영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 - 대외적 대만산 차 제품의 신뢰성 회복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대만 위생부가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찾잎 내 플루오피람(Fluopyram)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삭제했다. 이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아온 대만 정부가 문제를 잠식 시키고자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정안 발표로 해당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대만의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자체 검열을 통해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만 내 높아지고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여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변동 사항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위생부의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대한 수정안 발표내용은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22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7.06.29
2. 中國人民共和國商務部貿易救濟調查局,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6.12.22